

# 사울 레이터, 요시고, 필립 할스만

## 사진의 세계에 빠져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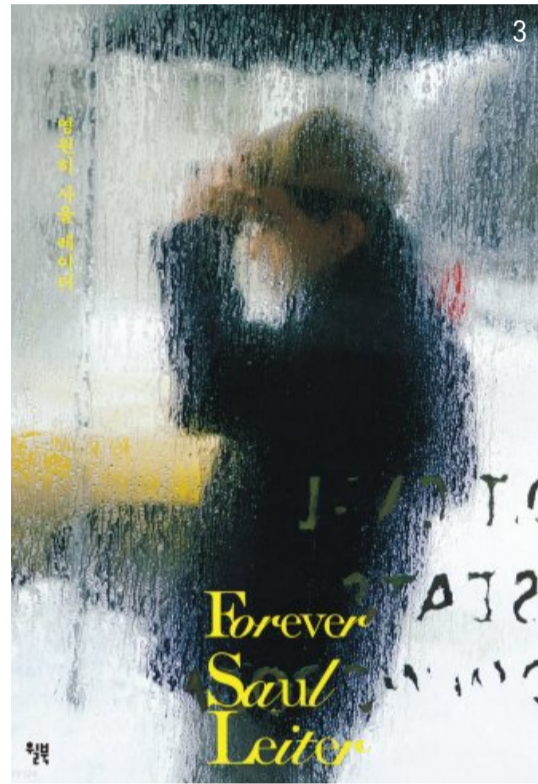
전시회, 사진 에세이 등 책 출간, 다큐 상영 눈길  
'따뜻한 휴일의 기록', '점핑 어게인' 등 주제 전시

요시고, 사울 레이터, 필립 할스만...  
지금 인터넷을 달구고 있는 사진작가들이다. 흑시작가의 이름이 낯설지도 모르지만 점프하는 오드리 햅번의 모습을 담은 필립 할스만의 작품, '컬러 사진의 선구자'로 꼽히는 사울 레이터의 '흐르는 듯한' 사진, 물 위를 유영하는 이의 모습이 인상적인 요시고의 작품, 모두 한 번 보면 마음에 각인이 된다.  
개성있는 작품 세계를 구축하는 사진작가를 만나 는 책, 영화, 전시 등이 눈길을 끈다. 서울 나들이 계획이 있다면 전시장을 한번쯤 찾아와 좋고 인터넷을 통해 작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으니 사진의 세계에 빠져보자.  
스페인 산 세바스티안 출신의 젊은 사진작가 요시 고의 작품은 요즘 '핫'하다. 지난해 6월 개막한 '요시 고 사진전 : 따뜻한 휴일의 기록'전은 지난해 열린 전 시 중 '피카소 탄생 140주년 특별전' 등에 이어 관객 객 동원 4위를 기록, 연장 전시에 들어갔고 정해운의 책 '슬픈 세상의 기쁜 말'의 표지로도 쓰이는 등 화제

를 모으고 있다.  
마이애미, 두바이 등 전 세계를 다니며 촬영한 사 진 350여점을 통해 따뜻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그의 작품은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열렬한 호응을 얻고 있 다. 전시는 오는 3월1일까지 그라운드 시소 서촌에서 열린다.  
'컬러 사진의 선구자', '뉴욕의 전설', '거리 사진의 대가'로 불리는 사울 레이터(1923-2013)는 전시, 영화, 책 출간이 동시에 이뤄지며 각광받고 있다. 30 년간 패션 포토그래퍼로 활동한 그는 '하퍼스 바자', '다이프' 등에 사진을 게재했으며 영화 '캐틀'의 배경 에 영향을 주기도 했다.  
최근 그의 삶과 예술을 담은 '사울 레이터:인 노 그 레이트 허리 In No Great Hurry'가 개봉된 데 이어 사진 에세이집도 월북에서 두 권이 연이어 나왔다. '사울 레이터의 모든 것'은 뉴욕을 사랑했던 사진가 의 스타일과 면모를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책이 고, '영원히 사울 레이터'는 1940년대 초기작부터 세 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10여 년간의 미발표작까지 대 표작품과 그의 문장들을 담았다.  
다큐는 세상을 떠난 2013년 촬영된 작품으로 '사울 레이터의 인생에서 배우는 13가지'라는 부제를 달고 카메라, 컬러사진, 후대에 남길 것, 가만히 있기 등 13가지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의 대표작 들도 화면으로 만날 수 있다.  
그의 작품을 만나는 '사울 레이터:창문을 통해 어 림פות이'전은 오는 3월 27일까지 피크닉에서 열린다. 라이프 매거진 최다기록인 101번의 작품을 표지에 실은 사진 작가 필립 할스만은 사람들이 '점프하는 순간'을 카메라에 담았다.  
필립 할스만의 '점핑 어게인'전은 오는 4월3일까지 K현대미술관에서 열린다. 지난 2013년 '점핑 위드 러브' 이후 8년만에 열리는 전시로 마릴린 먼로, 오드 리 햅번, 마르크 샤갈, 리차드 닉슨 대통령 등 당대의 유명 인사들의 점프 사진과 그의 도전정신을 느낄 수 있는 초현실주의 사진 등 151점의 작품이 나왔다.  
웨스 앤더슨 감독 영화 '그랜드 부다페스트호텔'을 본 사람이라면 그 절묘한 화면 구성과 파스텔 색조의 색감, 환상의 세계를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의 윌 리 코발이란 사람도 '웨스 앤더슨'에 푹 빠진 사람이 었다. 아내와 여행 버킷 리스트를 짜던 그는 영화에 나오는 장소와 비슷해 보이는 곳의 사진을 보고, 그곳 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2017년 '엑스텐탈리웨스앤



'오드리 햅번' (© Philippe Halsman)



더슨' (<https://accidentallywesanderson.com>) 을 개설한다. 현재 140만 명이 넘는, '모험과 탐험정 신'으로 무장한 이들이 세계 곳곳에서 찍은 아름다운 사진을 올리고 감상한다. 이 사진들은 인터넷에서도 누구나 볼 수 있다. 블루, 오렌지, 호텔, 도서관, 등대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사진을 클릭하는 순간, '웨스 앤더슨의 환상의 세계'에 빠져든다.  
지난해 윌리 코발이 출간한 책 '우연히, 웨스 앤더 슨' (웅진지식하우스 간)은 사이트에 투고된 작품을 실은 사진집이다. 표지로 쓰인 1882년 스위스 벨레데 레 호텔을 비롯해 평양의 지하철 등 200여 장의 사진 과 그에 얽힌 이야기가 담겨 있다.  
'우연히, 웨스 앤더슨' 전시 (6월6일까지 그라운드 시소 성수)에서는 회고, 여정, 영감을 주제로 300여 점의 작품을 만나며 최근 개봉한 웨스 앤더슨 감독의 '프렌치 디스패치' 포토존도 즐길 수 있다.  
마크 게티와 조너선 클레인이 1995년 설립한 글로 벌 이미지 저장소 '게티이미지'는 아날로그 이미지 사용 권한 산업을 온라인으로 옮긴 첫 번째 기업으로 서 4억 개가 넘는 이미지, 저작물, 출판물, 상업적 이 미지와 방대한 양의 역사 아카이브를 제공하고 있다.



- 1 요시고 전 포스터. 전시는 3월 1일까지 연장됐다.
- 2 요시고 작 'Dubai, UAE'
- 3 월북이 출간한 '영원히 사울 레이터'
- 4 '우연히, 웨스 앤더슨' (웅진지식하우스 간)의 표지로 쓰인 카를 로 퀴텔 작 '벨레데레 호텔'

허를 내밀고 웃는 아인슈타인, 높은 공사 현장의 철 제 구조물 위에서 쉬고 있는 노동자들의 점심시간을 찍은 사진 등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대표작을 만나는 '게티 이미지'전은 오는 3월27일까지 예술의전당 한 가람미술관에서 열린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광주문예회관 갤러리, 지역작가 지원 공모전

광주·전남여성작가회·한울회·아트그룹 소나무·이인호·정해숙 작가 등 전시

'공연도 보고, 그림도 보고.'  
광주문화예술회관 갤러리는 2016년 문을 열었다. 대극장과 소극장 사이에 자리한 넓은 전시장은 공연 과 미술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 다. 문예회관은 특히 지역작가와 단체 공모를 진행, 미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해오고 있다.



이인호 작 'purity'

올해 역시 공모를 통해 그룹전과 개인전을 5차례 개최한다.  
첫 타이프를 끊는 단체는 광주·전남여성작가회(회 장 김해숙)다. '따뜻하게 마주한 시선'을 주제로 열리 는 이번 전시는 2월 18일~3월 13일까지 관람객을 만 난다. 전시에서는 강숙자·이정주·최강희·고윤숙 등 42명 여성작가들이 각자의 개성과 감성을 담은 작품 을 선보일 예정이다.  
'시각적 다양성과 일상의 공감전 : 한울회'전은 4월 15일부터 5월8일까지 열린다. 한울회는 2008년 광주 지역 중견·원로작가 20명이 구성한 단체로 전시에서는 회화, 조각 등 다채로운 작품 25여 점을 선보인다.  
'중견작가 바라본 COVID-19 : 아트그룹 소나무' 전(6월 10일~7월 3일)도 진행된다. 코로나 시대 대두 되는 사회 문제들을 예술가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지, 또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고민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아트그룹 소나무는 1996년 창립한 미술단체 로 회화와 설치, 조각 등 다양한 작품을 전시한다.  
개인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된다. 서양화가 이인호 개인전 '결의 미학'은 3월 18일부 터 4월 10일까지 열린다. 'pleasure(기쁨)', '행복 (Happiness)', '순수(Purity)' 등의 시리즈를 통해 안개꽃, 등꽃, 장미꽃 등 다양한 꽃의 형상을 접목한



강숙자 작 '꽃잎이 바람에 날리네'

부조형 회화 40여 점을 선보이는 전시다.  
정해숙 작가는 '세상을 여는 희망 = 마음의 평화'를 주제로 개인전 (5월 13일~6월 5일)을 연다. '백두'에서 '한라까지' 색선에서는 태백산, 한라산 등 자연 모습에 사람의 형상을 투영시킨 작품을 선보이며 '내 영 혼을 적시는 시간'에서는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작 가의 삶의 여정과 이야기를 담은 작품을 소개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 광주문화재단, 2월3일~9일 접수

광주문화재단이 2022년도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 업' 공모를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공연장 활용을 높이고 공연단체에게는 연습 및 공연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올해는 2021년과 마찬가지로 6개 단체를 선정 할 예정이며 대상 장르는 연극·무용·음악·전통연희 등 이다.  
선정된 단체는 초연 창작품 1회 이상 우수레퍼토리 공 연 2회 이상 공연할 수 있으며, 지역민을 대상으로 하는 퍼블릭 프로그램 10회를 운영한다.  
선택프로그램으로 단원 역량강화 또는 관계자 역량 강 화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재단 기획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공연실적이 있는 전 문예술단체로, 광주시에서 공연한 실적만 인정된다. 또한 광주시 소재 전문 문화예술 법인 또는 등록 예술단체여야 한다.  
오는 2월 3일부터 9일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 해야 한다.  
문의062-670-7462.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